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 (1)  
주제: 대만과 일본 관계 및 일본 연구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특강 제 1 회는, 본교의 특약강좌교수로 계시는 서흥경 교수를 모셨다. 서 교수는 동오대학교 단목개의 강좌교수, 일본어과 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문화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다. 서 교수는 대만과 일본의 '정치와 외교, 경제, 교육와 문화' 세 영역의 연구를 돌아보고, 그 발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셨다.

1) 정치와 외교상의 대일 관계(台日關係)

대일 관계는 1949 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이후의 대만과 일본의 관계를 말한다. 1945 년부터 1972 년까지 중화민국은 일본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각 국에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여 만든 '공산세력 확장 저지'의 대일 동맹이다. 당시 대중(對中) 정책은 요시다 시게루의 '요시다 서간(吉田書簡)', 즉 국민당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1955 년 체제 형성 후, 요시다 시게루의 대중 정책이 도전받자,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또 끊임없이 쟁의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1960 년대 이후 일본이 집권한 자유 민주당을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경제와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고, 대일 관계에 대한 중국의 간섭도 두드러지고 있다. 요시다 시게루, 기시 노부스케, 사토 에이사쿠,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이 있지만, 일본 정계의 친중 세력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고 대만은 본래의 외교적 지위를 잃게 되었다. 1972 년 일본은 중화민국 정부와 국교를 단절했다. 단교 후에도 대만은 일본 민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쌍방 간 무역 및 문화 교류가 계속 발전하였다.

2011 년 동일본 대지진 후, 대만은 70 억 위안 이상의 기부금을 내었다. 금액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컸다. 그 이후 대일 관계가 발전되어 2017 년 일본 주대만 기구가 '공익재단법인 일본대만교류협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공식적인 교류는 더욱 빈번해졌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21 년 12 월 1 일 "대만에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일본에 일이 있는 것이며, 더 크게 말하면 미일 동맹에 일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방침은 후임인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취임을 해도 중국에 대한 입장을 계속 이어나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책인 '친미·우대(友台)·항중(抗中)' 노선이 계속 이어졌으며, 각료들은 여러 친대만 인사를 초빙하고, 대만과 일본 양측의 상호교류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2) 경제상의 대일 관계

대만과 일본 간의 경제 무역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2021년에는 대만과 일본이 서로 3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대만이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561억이며,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은 292억이다. 수출보다 수입 금액이 훨씬 크다.

"대만 일본 무역 경제 회의"를 비롯한 각종 형식의 대일 경제 무역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양국 간 상호 방문이 불가능하고, 여전히 원격 화상 회의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경제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대만은 CPTPP '환태평양파트너십 포괄적 진보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을 신청했다. 또 일본도 힘을 합쳐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상호 이익과 상생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하고, "경제 공동체 의식"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3) 교육과 문화상의 대일 관계

대만과 일본 사이의 유학생 수는 모두 상당히 많다. 2009년부터 시작된 워킹홀리데이 제도로 상당수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서 실제로 일본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교육 여행, 대일 양국 간의 직업은 모두 상대국을 존중한다. 교류는 빈번하지만, 대만과 일본 간 서로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대만에는 40개의 일본어 관련 학과가 있는데, 일본어 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 못지않게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연구까지 이어지는 고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대만의 일본 연구 문제를 대략 정리하면, 연구조직의 분산, 일본어교육과 일본 연구의 교류 결핍 문제, 진학 경로의 정비 문제 등이다. 일본 연구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각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인적 교류와 협력, 협상 등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 4) 대만의 일본연구의 발전전략

대만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려면, 반드시 다음 세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며, 대만 일본 공동학술연구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설립하고, '일본국제교류기금'과 협력을 모색하여, 일본의 문화협정국 가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대만의 일본 연구가 영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더욱이 이러한 연구로 일본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대만과 일본의 우호'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